

조선 시대 潮水 구분 계열어의 의미 대립 체계

이건식*

|| 차례 ||

- I. 서언
- II. 조선 시대 1일 내 潮水 구분 계열어
- III. 조선 시대 1월 내 潮水 구분 계열어
- IV. 조선 시대 1년 내 潮水 구분 계열어
- V. 결언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 시대 潮水 구분 어휘의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차자 표기의 潮水 구분 어휘를 해독하였다. 그리고 潮水 구분 계열어의 의미 대립 기준을 분석하였다.

1일 내 潮水 구분 계열어의 어휘로 ‘밀물, 혈물, 날물, 站[춤], 邊音[ㄱ슴]’ 등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1월 내 潮水 구분 계열어의 어휘류로 차자 표기의 경우에는 ‘一水挨, 二水挨, 三水挨, 四水挨, 五水挨, 六水挨, 七水挨, 八水挨, 九水挨, 十水挨, 折只, 二折只, 大折只, 少音, 水休/水衰/無水/無數’ 등의 15개 어휘가 있음을 밝혔다. 한글 표기의 경우에는 ‘흔물, 두물, 소리/한소리/한사리, 아흠물, 열물, 조금/첫조금/훗조금/쪼금’ 등 6개의 어휘를 발굴하였다. 1년 내 潮水 구분 계열어의 어휘로 ‘片生伊[뿌사리], 强生伊[센사리], 大生伊[한사리]/倭生伊[왜사리]’ 등이 있음을 밝혔다.

1일 내 潮水 구분 계열어에서 ‘밀물 대 혈물’의 대립은 ‘潮水 힘의 방향’을 구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날물’은 ‘조수의 수평 이동’을 구분 기준으로 한 것이고, ‘站[춤] 대 邊音[ㄱ슴]’의 대립은 ‘潮水의 수직 이동’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월 내 潮水 구분 계열어의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5개 어휘는 ‘潮水 힘의 정도’를 구분 기준으로 ‘生伊[사리], 折只[것기], 無水[무쉬]’ 등의 3종으로 계열화되어 있음을 규명하였다. 1년 내 潮水 구분 계열어의 3개 어휘 역시 ‘潮水 힘의 정도’를 구분 기준으로 한 것임을 규명하였다.

주제어 : 潮水, 계열어, 조선 시대, 조수 구분 기준, 차자 표기

I. 서언

달과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에 의해 해안가에서의 潮水의 상태는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지구의 공전으로 하루에 두 번 ‘밀물’과 ‘썰물’ 현상이 일어난다. 달의 지구 공전으로 15일을 주기로 潮水의 상태가 변화한다. 또한 지구의 태양 공전으로 4계절을 주기로 潮水의 상태가 변화한다. 해안가 潮水의 상태는 해안가 생활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따라서 1일 내, 1월 내, 1년 내 潮水 변화를 표현하는 어휘가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 글은 조선 시대 한글 표기와 차자 표기 문헌 자료에서 潮水 구분 계열어를 찾아 제시하고, 차자 표기 潮水 구분 어휘를 해독하고, 潮水 구분 계열어의 의미 대립 체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현대어 방언에 남아 있는 1월 내 潮水 구분 계열어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석주명(1947)을 필두로 많은 연구¹⁾에서 1월 내 조수 구

1) 강근보(1973, 1974), 강정희(2011), 국립국어원(2009), 국립문화재연구소예능민속연구실(2000), 국립민속박물관(1996, 2002), 김재원 편(1957), 김준(2008), 김해정(1988, 1989), 나승만(2005),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1969, 1971, 1974, 1975), 시흥시사편찬위원회(2007), 왕환석(2009, 2010, 2012), 이경엽(2001, 2005, 2009), 이기복(2003), 이승녕(1950), 장태진(1969ㄱ, 1969ㄴ), 濟州大學學徒護國團(1978), 조정만(1988), 주강현(2005), 현용준(1972, 1975), 현평효(1986), 홍기옥(2011), 洪淳鐸(1966) 등이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각 지역 방언형을 소개하고 있다.

분 계열어의 각 지역 방언형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를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소개하거나 지역 방언 조사의 결과로 조수 구분 계열어의 목록만을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이송녕(1950), 김재원 편(1957, 이송녕), 장태진(1969ㄱ, 1969ㄴ) 등에서 조수 구분 계열어의 국어학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수 구분 계열어의 의미 대립 체계의 특성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장태진(1969ㄱ, 1969ㄴ)이 조선 시대 차자 표기 자료의 조수 구분 계열어를 망라적으로 분석하였으나 국어학적인 논거를 제시하면서 조수 구분 계열어의 차자 표기를 해독한 것은 아니었다. 또 이기복(2003)이 비록 조선 시대 차자 표기 조수 구분 계열어를 언급하고 있으나 주된 관심이 민속학적인 것에 있는 것으로 단순한 목록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 시대 조수 구분 계열어를 1일 내, 1월 내, 1년 내 등의 3종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마다 조수 구분 계열어의 종류를 망라적으로 제시하고, 차자 표기 조수 구분 어휘를 해독한 다음에, 3종의 조수 구분 계열어가 가지는 의미 대립 기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조선 시대 1일 내 潮水 구분 계열어

1. 1일 내 潮水 구분 계열어의 종류

조선 시대 한글 표기 자료에서 1일 내 조수 구분 계열어로 ‘밀물 대 혈물’이 나타난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 (1) a. ㄹ류 ㄹ새 자거를 밀뜨리 사으리로더 나가사 즈므니이다 <龍飛御天歌 67>, 潮는 밀뜨리라 <釋譜詳節 21:15b>, 潮는 밀뜨리니 바룻

밀므리 念 업수더 <楞嚴經諺解 2:15b>, 너비 滄海入 밀므레 몬뜻
다 <杜詩諺解 중간본 1:34b>, 潮 밀믈 도 <訓蒙字會 上:2b>

b. 밀믈에 東湖 가고 혈믈에란 西湖 가자 <해동가요 64>

(1a)는 현대어 ‘밀믈’의 선대형 ‘밀믈’을 보여 주고 있다. (1a)의 ‘밀므리 사으리로드’는 ‘밀믈이 사흘동안 계속되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밀믈’이 1일 내에 일어나는 潮水의 변화를 표현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1b)는 현대어 ‘쌀믈’의 선대형 ‘혈믈’을 보여 준다. 현대어 ‘쌀믈’을 고려하면 (1b) ‘혈믈’의 선대형은 ‘*혈믈’일 것이나 ‘*혈믈’을 보여 주는 문헌 자료는 없다.

『광주천자문』 4b에 推의 훈과 음이 ‘밀 추’로 제시되어 있고, 『훈몽자회』 상:19a에 引의 훈과 음이 ‘혈 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밀믈 대 혈믈’은 ‘밀다[推] 대 당기다[引]’의 의미 대립이다.

또 조선 시대 한글 표기 자료에서 1일 내 조수 구분어로 ‘날믈’이 나타난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2) 한비를 아니 그치샤 날믈을 외오시니/不止霖雨 迺回潢洋 <龍飛御天歌 68>

(2)는 조선 태조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큰 비가 수일동안 내렸는데도 물이 불어나지 않아 (군사들이) 물을 건널 수 있었던 상황²⁾’을 노래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2)가 ‘큰 비가 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화도를) 날물로 에워싸서’의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의 ‘날믈’은 바로 ‘쌀믈’을 가리킨 것이다. 이는 동일한 내용을 漢詩로 표현한 ‘回潢洋’에서도 확인된다. ‘回潢洋’은 ‘거대한 바다를 돌

2) 『태조충서』, “時霖潦數日 水不漲 師旣渡 大水驟至 全島墊溺”

려보냈다'의 의미이므로 (2)의 '날물'은 '쏟물'을 의미한다.³⁾

현대어의 일부 방언에서는 '날물'의 상대어인 '들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들물'을 중세 국어 자료나 근대 국어 자료에서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차자 표기 자료에서는 '들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水入[물 들다]이 지명에서 확인된다. 즉 『新增東國輿地勝覽』 淮陽都護府 조의 水入縣 등⁴⁾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水入縣이 해안가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내륙에 위치한 점에서 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 다만 『三國史記地理志』 巨濟郡 조에 실린 '溟珍縣 本買珍伊縣' 조에 나오는 買珍伊[*멀드리]는 潮水에 대한 표현이어서 주목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溟珍 조에서 溟珍縣을 지금의 거제면 명진리(明珍里⁵⁾)로 추정하고 있는 것에 기대면, 買珍伊[*멀드리]가 江水가 아니라 潮水에 대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거제면 명진리(明珍里)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의 의미를 가진 買珍伊⁶⁾에서 買는 '물'을 표기하되 潮水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유창돈의 『이조어사전』에 '날물'은 표제항으로 실려 있지 않다.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4의 『옛말과 이두』 편에는 '날물'이 실려 있고, '쏟물'로 풀이되어 있다. 남광우 편저의 『교학 고어사전』에는 '날물'이 '큰물'의 뜻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龍飛御天歌』의 주석 '回潢洋'에서 '回'는 고려치 않고, '潢洋'의 뜻만 대입시킨 결과이다.

4) 『朝鮮地誌資料』에 龍仁郡 水余面 東津리에 소재한 水入坪의 한글 표기가 '무두실', 楊平郡 西宗面 水入리에 소재한 水入里江의 한글 표기가 '무두리강', 楊平郡 西宗面に 소재한 水入리의 한글 표기가 '무두리', 楊平郡 西宗面 水入리에 소재한 水入里津의 한글 표기가 '무두리나루'로 제시된 것이 참고가 된다.

5) 『新增東國輿地勝覽』 거제현 산천 조에 실린 溟珍浦가 『李忠武公全書』 卷之四 狀啓三의 陳倭情狀 조에는 明珍浦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을 감안하면, 溟珍縣의 溟珍은 16세기 중반에 明珍으로 그 표기가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6) 買珍伊에 대해서 신태현(1958: 39)은 '*므들이', 천소영(1990: 104)은 '물이 들어오는 곳'으로 해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買珍伊가 '물(명사어간)+들-(동사어간)+-이(명사과생접미사)' 정도의 구성을 가지는 '*므들이'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買珍伊는 潮水의 변화를 표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도수희

조선 시대 차자 표기 자료에서 1일 내 조수 구분 계열어가 나타나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 (3) a. 또 조수가 바야흐로 강과 포구의 어귀에서 극히 불어날 때, 바다의 가운데에서는 먼저 물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속담에 말하기를 안에는 **站**이나 밖은 **邊**音이라 한다.[방언에서 潮汐이 극히 불어난 때를 **站**이라 하고 다 물러간 때를 **邊**音이라 한다. 배를 움직이는 자는 **站**에 나아가고 걸어다니는 자는 **邊**音에 나아간다.] 이는 하루 동안에 潮汐이 進退하는 징후인 것이다.^{7) 8)}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 b. 所屯山麓에는 바위 구멍 사이에서 물이 나온다. 보통 때에는 그 흐르는 것이 실오리 같고, 매일 아침 저녁에는 넘쳐 흘러서 3, 4리를 적시다가 그쳐서, 潮水의 왕래하는 것과 같으므로, 水推라고 이른다.⁹⁾ <慶尙道地理志, 聞慶縣>

(2003: 73)는 “買珍伊의 珍은 그 참여 위치가 어말(혹은 어중)이기 때문에 그 뜻이 山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였다. 또 도수희(2003: 74)는 買珍伊의 伊에 대해서 珍伊를 ‘달이’ 또는 ‘다리’로 읽어야 함을 지시하는 말음첨기자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도수희(2003)의 주장은 買와 珍伊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買[물]과 珍伊[山]의 의미 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買를 ‘물’로 파악한다면, 珍伊를 ‘*들이’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且潮水方漲於江浦之口 而海中則先已盡退 故海諺云 內站而外邊音[方言稱潮汐極漲之時曰站 盡退之時曰邊音 舟行者站 步行者趨邊音] 此一日之內 潮汐進退之候也”

8) 이 내용은 『增補文獻備考』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다. 그런데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의 ‘舟行者趨邊音’은 『增補文獻備考』에서 ‘舟行者站步行者趨邊音’으로 수정되어 있다. ‘舟行者站步行者趨邊音’이 바른 것으로 생각된다. <http://www.krpia.co.kr>에서 『增補文獻備考』의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http://www.krpia.co.kr>에서 邊音을 ‘가꿈’로 해독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旅菴全書』 권9 四沿考 潮汐에도 유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9) 『慶尙道地理志』, 聞慶縣, “所屯山麓 有水出自巖穴間 常時其流如線 每日朝暮漲溢 噴浸三四里 而止 如潮水往來 名之曰水推”

(3a)는 ‘潮汐이 극히 불어난 때’를 지칭하는 차자 표기 站과 ‘潮汐이 다 물러간 때’를 지칭하는 차자 표기 邊音을 보여 준다. 한편, (3b)는 ‘潮水の 왕래’를 뜻하는 차자 표기로 水推가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2. 1일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차자 표기 해독

1) 站의 해독

(3a)의 내용 중에서 차자 표기 站의 해독과 관련한 중요 내용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 a. 방언에서 潮汐이 극히 불어난 때를 站이라 하고¹⁰⁾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 b. 배를 움직이는 자는 站에 나아 가고, 걸어 다니는 자는 邊音에 나아 간다.¹¹⁾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 c. 이는 하루 동안에 潮汐이 進退하는 징후인 것이다.¹²⁾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4)는 ‘站’의 세 가지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站이 방언이며, ‘潮水가 극히 불어난 것’의 의미이며, ‘1일 내 조수의 변화를 표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4b)의 ‘배를 움직이는 자는 站에 나아 가고’는 站의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된다.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4 海道 1 客舟 조에 나오는 “바다에서의 항행은 깊은 것은 두렵지 않고, 다만 얇은 곳에 박히는 것을 두려워 한다”

10)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方言 稱潮汐極漲之時 曰站”

11)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舟行者趨邊音”

12)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一日之內 潮汐進退之候也”

의 설명¹³⁾에 근거하면, 站의 의미를 ‘조수가 깊은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차자 표기 站의 해독과 관련하여 다음의 현대어와 방언 자료가 주목된다.

- (5) a. 참02(=참물) <표준국어대사전>
- b. 참물(滿潮 때의 물. ≍참02.) <표준국어대사전>
- c. 물썩를 기다려 썰물에 썩느니라 과연 물춤에 든 스공갓치 안져서 <명월정¹⁴⁾>

- (6) a. 漲潮 참물 <어청도 방언, 김재원 편¹⁵⁾, 1957:172>
- b. 왕참(滿潮의 最高) <어청도·흑산도 방언, 김재원 편, 1957:172>
- c. 들물[초들물, 중물, 참받이] <진도 방언, 장태진, 1969ㄴ:7>
- d. 들물[초들물, 중참, 참받이/왕참] <도초도 방언, 장태진, 1969ㄴ:7>
- e. 들물[초들물, 참받이] <청산도 방언, 장태진, 1969ㄴ:8>
- f. 참받이<독거도 방언, 장태진 1969ㄴ:8>
- g. 참(물이 완전히 밀어온 만조) <강화도 내가면 황청리, 왕한석, 2009:39>
- h. 참바지(만조 즉 물이 제일 많이 든 상태) <전남 조도, 왕한석, 2010:57>

(5)는 표준어 자료이고, (6)은 방언 자료이다. (5)와 (6)에서 ‘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참’의 의미가 ‘滿潮’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의 의미가 ‘滿潮’인 점은 (6c), (6d), (6e) 등에서 ‘들물’을 셋 또는 둘로 구분하되,

13)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4, 海道1, 客舟, “海行 不畏深 惟懼淺 閣以舟底不平 若潮落則傾覆不可救 故常以繩垂鉛硃試之”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명월정’은 朴頤陽의 변안소설로 1912년 唯一書館에서 발간되었다.

15) 이 자료는 김재원이 편한 것이지만 해당 내용은 이승녕이 집필한 것이다. 이하 동일하다.

‘들몰’의 마지막 단계를 ‘참’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訓蒙字會』中:5a에 站의 훈과 음이 ‘역 참’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站이 ‘참’을 표기한 것으로 해독할 수 있다. 다만 ‘참’이 ‘滿朝’의 의미를 가지고, 『광주천자문』 17b에 滿의 훈과 음을 ‘출 만’으로 제시된 것을 고려하여, ‘참’의 선대형으로 ‘*츨’을 상징할 수 있다. ‘*츨’은 ‘츨-[滿]+口(명사형 어미)’ 정도의 구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2) 邊音의 해독

(3a)의 내용 중에서 차자 표기 邊音의 해독과 관련한 중요 내용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7) a. 방언에서 潮汐이 <중략> 다 물러간 때를 邊音이라 한다.¹⁶⁾<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 b. 배를 움직이는 자는 站에 나아가고 걸어 다니는 자는 邊音에 나아가다.¹⁷⁾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 c. 이는 하루 동안에 潮汐이 進退하는 징후인 것이다.¹⁸⁾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7)은 ‘邊音’의 네 가지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邊音은 방언이며, ‘潮水가 다 물러간 것’의 의미이며, ‘1일 내 조수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고, ‘걸어 다니는 자는 邊音을 뒤쫓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宣和奉使高麗圖經』 권23 雜俗2 漁 조에 나오는 “다만 굴과 대합들은 조수가 빠져도 나가지 못하므로, 사람이 줍되 힘을 다하여 이를 주워도 없

16)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方言稱潮汐 <중략> 盡退之時曰邊音”

17)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舟行者趨邊音”

18)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此一日之內 潮汐進退之候也”

어지지 않는다.”의 설명¹⁹⁾을 참조하면, (7b)의 ‘걸어다니는 자는 邊音에 나아간다’는 갯벌에서의 해산물 채취 활동을 표현한 것이다.

차자 표기 邊音의 해독과 관련하여 다음의 현대어와 방언 자료가 주목된다.

- (8) a. 감02(=감물02) <표준국어대사전>
 b. 감물(干潮 때의 물. ㄴ감02.) <표준국어대사전>
 c. 잣감(밀물이 다 빠져나가 바닷물이 잣아진 때) <표준국어대사전>
- (9) a. 가슴02(‘감02’의 방언(경북, 전남)) <표준국어대사전>
 b. 감물[退潮로 말미암아 가장 물이 빠진 狀態] <어청도, 흑산도 방언, 이승녕, 1957:153, 172>
 c. 썰물[초썰물, 중물, 가세] <진도 방언, 장태진, 1969:7>
 d. 썰물[초썰물, 중썰물, 가세탕] <도초도 방언, 장태진, 1969:7>
 e. 썰물[초썰물, 중썰물, 잣썰기] <청산도 방언, 장태진, 1969:8>
 f. 썰물[아리버지, 가세물] <독거도 방언, 장태진, 1969:8>
 g. 가세지다(완전한 썰물이 되다) <청산도, 독거도 방언, 1969:35>
 h. 감(물이 완전히 썰어나간 간조) <강화도 내가면 황청리, 왕한석, 2009:39>
 i. 가셋물(간조 즉 물이 제일 많이 쓴 상태) <전남 조도, 왕한석, 2010:57>
 j. 갯 뻘었다(물의 흐름이 날물로 바뀌었다) <경상 사랑도, 왕한석, 2012:75>

(8)은 표준어 자료이고, (9)는 방언 자료이다. 표준어 자료를 제시한 (8)에서는 ‘감’의 어형만 존재하나 방언 자료를 제시한 (9)에서는 ‘감’의 어형

19) 『宣和奉使高麗圖經』, 권23, 雜俗, 漁, “唯蠣蛤之屬 潮落不能去 人掇拾盡力 取之不竭也”

은 물론 ‘가슴, 갓, 가새, 가세’ 등의 어형을 보여 준다. (8)과 (9)에서 ‘감, 가슴, 갓, 가새, 가세’ 등의 의미가 ‘干潮’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감, 가슴, 갓, 가새, 가세’ 등의 의미가 ‘干潮’인 점은 (9c), (9d), (9f) 등에서 ‘썰물’을 셋 또는 둘로 구분하되 ‘썰물’의 마지막 단계를 ‘가새, 가세’ 등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9a)의 ‘가슴’은 표준어형 ‘감’에 상대되는 ‘참’과 관련하여 그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현대어 ‘참’이 ‘차다’의 명사형이므로 ‘참’에 상대되는 (9a)의 ‘가슴’도 동사의 명사형일 가능성이 있다. 즉 ‘가슴’은 ‘갓+음’ 정도의 구성으로 이해된다. 한편 (9j)의 ‘갓’은 명사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9i)의 ‘가셋물’은 ‘갓+애+ㅅ+물’ 정도의 구성으로 이해된다. 결국 ‘갓’은 ‘용언의 어형’과 ‘체언의 어형’이 같은 어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갓-’ 또는 ‘갓’과 ‘가새, 가세’ 등의 관계는 미상이다.

현대어 ‘감’의 방언형이 ‘가슴’인 것을 고려한다면, 邊音을 ‘검’이 아니라 ‘ㄱ슴’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현대어 ‘감’은 ‘*ㄱ슴>*ㄱ슴>가슴>*가슴>감’ 정도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되며, 방언형 ‘가슴’은 ‘*ㄱ슴>ㄱ슴>가슴’ 정도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된다. 즉 ‘*ㄱ슴’을 ‘*갓--+음(명사형 어미)’ 정도의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츠-[滿]’와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갓-’이 중세어나 근대어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의미의 측면에서 ‘츠-[滿]’와 대립되는 의미로 중세어에는 ‘갓[邊]’이 있어 ‘*갓-’의 존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명사 ‘갓[邊]’과 연관될 수 있는 동사 ‘갓[邊]-’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열린 생각해서 ‘츠-[滿]’와 ‘*갓[邊]-’의 의미 대립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 자료는 邊이 底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주어 ‘츠-[滿]’와 ‘*갓[邊]-’의 의미 대립을 가능케 한다.

(10) a. 邊 밋 변 <영장사관 유합:1b>

- b. 한국고유한자 ‘邊, 邊, 法, 邊’ 등은 會意字로 ‘邊, 邊, 法’ 등의 邊은 邊의 의미를 가졌으나, ‘구덩이’를 뜻하는 邊의 邊은 底의 의미를 가졌다. <이건식, 2013:128>

『훈몽자회』中:4b에 邊의 훈과 음이 ‘ㄹ 변’, 『新增類合』上:2a에 邊의 훈과 음이 ‘ㄹ 변’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a)에서는 邊의 훈이 ‘밋[底]’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밋[底]’이 ‘ㄹ[邊]’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10b)는 이견식(2013: 128)의 연구 결과로 한국고유한자 구성에서 일반적으로 邊은 邊의 의미를 가졌으나 邊의 경우에는 邊이 底의 의미로 쓰였음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국어의 ‘ㄹ’이 邊의 의미뿐만 아니라 底의 의미도 표현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水推의 해독

『慶尙道地理志』의 聞慶縣 조에 나오는 水推가 차차 표기임을 확인해 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1) a. 所屯山麓은 현 서쪽 13리에 있다. 【샘이 있고, 바위 구멍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데, 보통 때에는 그 흐르는 것이 실오리 같고, 매일 아침 저녁에는 넘쳐 흘러서 3, 4리를 적시다가 그쳐서, 潮水의 왕래하는 것과 같으므로, 시속에서 水推라고 이른다.】²⁰⁾²¹⁾<世宗實錄地理志, 聞慶縣>

20) 『世宗實錄地理志』, 聞慶縣, “所屯山麓在縣西十三里 【有泉出自岩穴間 常時其流如線 每日朝暮漲溢 賁浸三四里而止 如潮水之往來 俗謂之水推】”

21) 이 글에서 인용한 『世宗實錄地理志』와 『조선왕조실록』의 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정보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에서 제공하는 것을 활용한 것임을 밝혀 둔다.

- b. 鳥岾은 문경에 있는데 조석천이 두 군데가 있어 혹은 하루에 두 번 오고 혹은 하루에 세 번 온다. 그것을 水推이라 이르는데 역시 방언이다. 22) <阮堂先生全集, 卷九 詩 子午泉>

(11a)는 水推가 속칭임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11b)는 水推가 우리말임을 확인시켜 준다.

『신증유합』 下:38b에 推의 훈과 음을 ‘밀 퇴’로 제시하고 있고, 중세어에 ‘밀물’이 존재하므로 水推는 ‘물밀다’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3. 1일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의미 대립 체계

앞 절에서 조선 시대 1일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종류로 ‘밀물, 혈물, 날물, 站[*츨], 邊音[*ㄹ슴]’ 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밀물’과 ‘혈물’은 ‘밀대[推] 대 혀대[引]’의 의미 대립을 보여 준다. ‘물이 밀다’ 정도의 의미를 표현한 차자 표기 水推에 근거하면, ‘밀물’과 ‘혈물’의 대립에서 ‘밀다’와 ‘혀대(당기다)’의 주체는 ‘물’, 곧 ‘潮水’가 된다. 따라서 ‘밀대[推] 대 혀대[引]’의 의미 대립은 ‘潮水 힘의 방향을 구분한 것이다.

조선 시대 조수 구분 계열어 ‘날물’은 ‘썰물’을 말하는 것이다. ‘날물’의 상대어로 생각되는 ‘*들물’은 조선 시대 문헌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어의 방언에서는 ‘들물 대 날물’의 조수 구분 계열어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 시대에 ‘*들물’ 정도가 존재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대어의 방언 ‘들물’은 ‘해안가로 들어온 물’, ‘날물’은 ‘해안가에서 나간

22) 『阮堂先生全集』, 권9, 詩, 子午泉, “鳥岾在聞慶 有潮汐泉二處 或一日二至 或一日三至 謂之水推 亦方言也”

물'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밀물 대 혈물'의 대립에서 '潮水'가 행위의 주체가 된 것처럼 '들물 대 날물'의 대립에서도 행위의 주체는 '潮水'가 된다. '潮水가 해안가로 들어오고, 해안가에서 나가는 것'은 潮水의 수평 이동을 표현한 것이다.

站은 '츠+ㅁ' 정도로 구성된 '*츰' 정도를 표기한 것이고, 邊音은 '*긫+음' 정도로 구성된 '*ᄃ슴' 정도를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으로 '츄다'와 '*긫다'의 행위 표현을 찾을 수 있다. 潮水와 관련하여 '츄다'는 '滿'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따라서 站[츰]은 '해안가에 조수가 찬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邊音은 站의 상대어이므로 '*긫다'는 '츄대[滿]'의 반대어인 '빠지다'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站은 '해안가에 조수가 차 오르는 것', 邊音은 '해안가에 조수가 빠진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 시대 1일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구별 기준

조수 변화의 구별 기준	語種	潮水의 종류	
		밀물	썰물
조수 힘의 방향	한글표기	밀물	혈물
	차자표기	水推[물밀]	
조수의 수평 이동	한글표기		날물
조수의 수직 이동	차자표기	站[*츰]	邊音[*ᄃ슴]

Ⅲ. 조선 시대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

1.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종류

조선 시대 문헌 자료에서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로 매우 이른 시기 차자 표기 자료와 부분적으로 전하는 한글 표기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2) a. 한결같이 매월 보름과 그믐에 여섯 번째의 물길[六水]에서 열 번째의 물길[十水]에 이르기까지는 沙渡에서 大船이 남쪽 防築에 이를 수 있습니다.²³⁾ <太宗實錄, 1413년(태종 13) 8월 10일>
- b. 물읏 침을 주고져 홀편대 몬져 하늘 기운이 청정흙과 월녕의 영흐며 허흙과 조금과 보눔과 금음과 초흐르과 본명날과 도팀날과 혈지날과 혈기날과 뵤름과 비과 칩기 덩기과 보아 다 금기홀씨니(弦望晦朔)<馬經抄集諺解 上:54a>
- c. 上弦 첫조곰<譯語類解 上:3b>, 上弦 첫조곰<蒙語類解 上:3a>, 上弦 첫조곰<方言類釋 申部方言:7b>
- d. 下弦 훗조곰 <譯語類解 上:3b>, 下弦 훗조곰 <蒙語類解 上:3a>, 下弦 후스조곰<同文類解 上:3>, 下弦 훗조곰 <방언유석 申部方言:7b>
- e. 大起 소리 <廣才物譜>, 大起 [每月十五日三十日 한소리] <才物譜 1, 地譜一 水>, 大起[每月望晦 한사리] <博古 天 潮>
- f. 上岸[二弦之後 潮漲漸大 혼물두물부팀]<柳僖 物名考, 水>
- g. 下岸[朔望之後 漸縮漸細 아흙물열물부팀]<柳僖 物名考, 水>
- h. 小迅 매월 上下弦이다. 조수가 극히 줄어들어 가늘어지는 것이다. ‘무쉬’이다.²⁴⁾ <柳僖 物名考 水>

23) 『太宗實錄』, 1413년(태종 13) 8월 10일, “每月望晦 自六水至十水 沙渡大船可至南防築”

24) 柳僖, 『物名考』, 水, “小迅 每月上下弦 潮極縮細 무쉬”

- i. 달의 초8일이 上弦이 되고, 23일이 下弦이 된다. 아울러 ‘조금’이라 칭한다. ‘潮가 금지되다’의 뜻이다. 달이 상하현이 되면 바다 조수가 쉬는 까닭에 潮禁이라 한다. 25) <東言考略 上 俗言>

(12a)는 六水와 十水라는 1월 내 조수 구분 용어가 15세기 초기에도 쓰였음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로 조수 구분 용어가 우리나라의 매우 이른 시기에 쓰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12b)에서 ‘조금’은 弦에 대응한다. 15일을 뜻하는 ‘보눔[望]’과 30일을 뜻하는 ‘금음[晦]’과 초하루를 뜻하는 ‘초하리[朔]’ 등을 고려할 때, 弦은 上弦日인 8일과 下弦日인 23일 모두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12c)의 上弦과 (12d)의 下弦은 ‘時令’의 항목에서 설명된 것이다. 이로 보아 上弦과 下弦은 ‘반달’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上弦日과 下弦日을 지칭한 것이다. (12c)에서 上弦을 ‘첫조금’으로 제시하고, 下弦을 ‘훗조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때, 8일의 ‘조금’을 ‘첫조금’으로 23일의 ‘조금’을 ‘훗조금’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2i)는 8일과 23일을 통칭하여 ‘조금’이라 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8일과 23일을 지칭하는 ‘조금’과 ‘조곰’ 중에서 ‘조곰’이 고형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어에서 8일과 23일을 지칭하는 어휘가 ‘조금’이기 때문이다. 현대어 ‘조금’의 선대형이 ‘조곰’이라는 사실은 현대어 ‘조금’의 어원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문세영의 『修正增補朝鮮語辭典』에서 ‘조금’을 ‘조감(潮減)에서 온 말’로 풀이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 준다. 『修正增補朝鮮語辭典』의 풀이는 『동국세시기』에서 ‘上弦日과 下弦日을 潮減日이라고 한다’에 기댄 것으로 생각된다. 『新增類合』 下:58b에 減의 훈

25) 『東言考略』, 上, 俗言, “以初八日爲上弦 廿三日爲下弦 并稱조금者 潮禁也 月弦則海潮息 故謂潮禁”

과 음을 ‘덜 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조감>조곰’의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12i)의 潮禁도 ‘조곰, 조금, 조곰’ 등이 고유어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곰’을 차자 표기로 少音이라 한 것에 기대면, 17세기 자료인 『辟癘新方』 11a의 ‘또 조금 물에 빠 먹고/又取小許水 調服得’에 출현한 ‘조곰[小許]’의 의미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2e)는 한어 大起에 대응한 한글 표기 ‘스리, 한스리, 한사리’ 등을 보여 주고 있다. ‘한’은 大에 대응되고, ‘스리’ 또는 ‘사리’는 起에 대응된다. 이로 보아 ‘스리’ 또는 ‘사리’는 ‘살-[生]’의 명사형으로 파악된다. 즉 ‘·>卜’의 변화 결과로 표기 상 ‘·’와 ‘卜’가 혼용되어 쓰인 것으로 이해된다.

(12f)와 (12g)는 1월 내 조수를 구분하는 ‘한물’부터 ‘열물’까지의 현대어가 19세기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려 준다.

(12h)의 ‘무쉬’는 9일 또는 24일을 지칭하는 현대어 ‘무시’의 선대형이다.

조선 시대 문헌 자료에서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가 차자 표기 자료로는 그 전체가 전한다.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차자 표기를 소개한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3) a. 鄭齊斗(1649~1736), 『霞谷集』 권21 潮汐說
- b. 申景濬(1712~1781),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²⁶⁾
- c. 申景濬(1712~1781), 『道路考』 권4 附潮汐
- d. 申景濬(1712~1781), 『旅菴全書』 권9 四浴考, 潮汐
- e. 徐命膺(1711~1787), 『攷事新書』 권1 潮汐
- f. 成海應(1760~1839), 『研經齋全集』 卷四十五 地理類 祖江濤志
- g. 李圭景(1788~1856), 『五洲衍文長箋散稿』 潮汐辨證說²⁷⁾

26)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조의 내용은 『增補文獻備考』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다.

h. 金邁淳(1776~1840), 『臺山遺集』권7 鹽記²⁸⁾

(13)에 제시된 문헌 자료에서 소개된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1

음력일	霞谷集	輿地考	道路考	旅菴全書
1/16	七水	七水挨[挨者推也 方言稱水進曰水推]/	七水挨[推也]	七水挨
2/17	八水	八水挨	八水挨	八水挨
3/18	九水	九水挨	九水挨	九水挨
4/19	十水	十水挨	十水挨	十水挨
5/20	十一	折只[言水折而減也]	一折只[水推折而微也]	折只
6/21	十二	二折只	二折只	二折只

27) 『五洲衍文長箋散稿』, 潮汐辨證說, “每月初八日上弦 俗稱初燥今 水無進退之日也 初九日稱一水 名曰浦無息 日무숨날 至十五六水 及七八 極大漲謂之澌 九十兩水漸小進 二十日謂之一折다각기 二十二日亞次燥今 二十三日下弦大燥今 二十四日更爲一水 俗稱死日 亦云無數 農人亦忌播種 二十五日至三十日謂之七水 月雖小盡 亦云七水 而初二三日 卽十水也 初四又云一折 初五日二折 初六日盡折 初七日亞次燥今 初八日復爲初燥今 周而復始 不失時刻”

28) 이규필(2009: 10)에 따르면, 鹽記는 존경각 소장의 『臺山初藁』 권12, 연세대학교 소장의 『臺山遺集』 권7에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鹽記에는 1월 내 조수 구분 용어가 소개되었다. 이 내용을 이규필(2009: 10)의 소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문과 원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潮水는 그믐과 보름에 차고, 상현과 하현에 빠진다. 까닭에 민간에서 상현과 하현을 潮減이라 한다. 상현과 하현 다음날을 민간에선 無水라고 하는데 밀물도 썰물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수 다음날부터 조수가 차기 시작한다. 첫째 날이 一水, 둘째 날이 二水가 된다. 이렇게 하여 八水 혹은 九水가 되면 꼭 차서 盈極이 된다. 盈極이 되면 날마다 조수가 빠진다. 상현이나 하현에 이르면 다 빠져서 減極이 된다./海潮盈於晦望 減於兩弦 故俗稱兩弦爲潮減 兩弦翌日 俗稱無水 謂潮無進退也 自無水翌日 潮始向盈 一日爲一水 二日爲二水 至八九水盈極. 盈極則日減一日 至弦而減極”

7/22	小弦	大折只	大折只	大折只
8/23	弦	少音[言水極少也]	遭空[水盡空縮也]	少音
9/24	水休	水衰	水衰 [不長不消與遭空無異也]	水衰
10/25	一水	一水挨	一水挨	一水挨
11/25	二水	二水挨	二水挨	二水挨
12/27	三水	三水挨	三水挨	三水挨
13/28	四水	四水挨	四水挨	四水挨
14/29	五水	五水挨	五水挨	五水挨
15/30	六水	六水挨 號生伊 [水盡生而極盛也]	六水挨[號生伊 水生極盛也 望後如望前日例]	六水挨 號生伊

〈표 3〉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2

음력일	攷事新書	研經齋全集	五洲衍文長箋散稿		臺山遺集
1/16	七水挨 [推也方言]	七水挨 <중략> 挨者推也 方言稱水進曰推	及七八 極大漲謂之漸		
2/17	八水挨	八水挨			八水
3/18	九水挨	九水挨	九十兩水漸小進 / 初一二三日 卽十水也		九水
4/19	十水挨	十水挨	初四又云一折		
5/20	一折只[方言]	折只 言水折而減也	初五日二折	二十日謂之一折 다격기 ²⁹⁾	
6/21	二折只	二折只	初六日盡折		
7/22	大折只	大折只	初七日亞次燥今	二十二日亞 次燥今	

29) 20일은 단순히 ‘격기’라 해야 하나 ‘다격기’라 한 이유는 자세치 않다.

8/23	遭空[方言]	少音 言水極小也	初八日 上弦 俗稱初燥今 水無進退 之日也 初八日復爲初 燥今	二十三日下 弦大燥今	潮減
9/24	無水 [不長不消 與初八日無 異 故曰無水]	水衰	初九日稱一水 名曰浦無息 <small>기 무숨날</small>	二十四日更 爲一水 俗稱死日 亦云無數	無水[謂 潮無進 退也]
10/25	一水挨	一水挨			一水
11/26	二水挨	二水挨			二水
12/27	三水挨	三水挨			
13/28	四水挨	四水挨			
14/29	五水挨	五水挨			
15/30	六水挨 號生伊[方言]	六水挨	至十五六水及 七八 極大漲謂之漸	二十五日至 三十日謂之 七水 月雖小盡 亦云七水	

『輿地考』, 『攷事新書』, 『道路考』, 『旅菴全書』, 『研經齋全集』, 『霞谷集』 등에서는 29일의 작은 달은 고려하지 않고 30일의 큰 달을 기준으로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작은 달’과 ‘큰 달’의 조수 구분 계열어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한편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30일을 ‘七水’로 설명한 것은 현대에 남해안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8물식 물때³⁰⁾를 설명한 것이다. 『輿地考』, 『攷

30) 현대에 서해안은 음력 1일과 16일을 ‘7물’로 하여 7물식 물때를 사용하고, 남해안은 ‘8물’로 하여 8물식 물때를 사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潮水 干滿의 차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潮水 干滿의 차에 대한 인식은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조에서 살필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에는 오직 서해와 남해에만 潮汐이 있다. 영암의 갈두산 동쪽에는 潮汐이 다르다. 영남의

事新書』, 『道路考』, 『旅菴全書』, 『研經齋全集』, 『霞谷集』 등에서는 현대에 서해안 지역에서 사용하는 7물식 물때를 설명한 것과 달리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8물식 물때 시간 계열어를 설명한 것의 유래는 자세치 않다.

2.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차자 표기 해독

1) 水挨와 水의 해독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25일부터 30일의 6일과 1일부터 4일까지의 10일간 등을 水挨와 水의 단위를 사용하여 一에서 十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앞질의 <표 2>와 <표 3>에서는 水挨와 水의 의미를 주석하고 있다. 이 주석을 활용하여 水挨와 水를 해독하기로 한다.

- (14) a.挨는 ‘밀다’이다 방언에서 水進을 水推라 한다.³¹⁾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b.挨[‘밀다’이다]³²⁾ <道路考 권4 附潮汎>
 c.水挨는 ‘밀다’이다.³³⁾ <旅菴全書 권9 四沿考 潮汐>
 d.方言에서 水進을 水推라 한다. 물이 점점 盛하는 것이다.³⁴⁾ <旅菴全書 권9 四沿考 潮汐>
 e.挨[‘밀다’이다. 방언이다.]³⁵⁾ <攷事新書 권1 潮汐>

김해에 이르러서는 (潮汐이) 더욱 미약해 진다. 울산 이북의 동해에는 (潮汐이) 전혀 없다. / 我國惟西南海有潮汐 而至靈巖之葛頭山東有異 至嶺南之金海遂微 蔚山以北東海全無焉”이라 하고 있다.

31)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挨者推也 方言稱水進曰水推”

32) 『道路考』, 권4, 附潮汎, “挨[推也]”

33) 『旅菴全書』, 권9, 四沿考, 潮汐, “水挨者推也”

34) 『旅菴全書』, 권9, 四沿考, 潮汐, “方言稱水進曰水推 謂水漸盛也”

35) 『攷事新書』, 권1, 潮汐, “挨[推也方言]”

f. 挨는 ‘밀다’이다.[方言에서 水進을 ‘밀다’라 한다] 36) <研經齋全集 卷四十五 地理類 祖江濤志>

(14)에서 水挨와 水推을 방언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水挨와 水推가 차자 표기임을 말한 것이다. 차자 표기 水推의 의미로 제시한 水進은 ‘물이 나아가다’의 뜻이므로 水推는 ‘물 밀다’ 정도로 풀이된다. 한편 (14)에서는 挨가 推의 의미임을 설명하고 있다. 『훈몽자회』 下:10b에 挨의 훈과 음을 ‘미질 애’라 하였으나 水推를 ‘물 밀다’로 해독한 것처럼 水挨도 ‘물 밀다’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輿地考』, 『旅菴全書』, 『攷事新書』, 『研經齋全集』 등에서는 水挨[물 밀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霞谷集』과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水만을 사용한 것이 주목된다. 水[물]는 水挨[물밀다]의 생략 표기로 생각된다. 이것은 오늘날 ‘한물, 두물’ 등이 ‘한 물 밀다, 두 물 밀다’에서 기원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2) 折只와 折의 해독

5일부터 7일까지의 3일간, 20일부터 22일까지의 3일간을 折只 또는 折의 구분 단위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15) a. 折只[물이 꺾여서 적어진 것이다] 37)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b. 折只 물이 꺾여서 적어진 것을 말한다. 38)

<研經齋全集 卷四十五 地理類 祖江濤志>

36) 『研經齋全集外集』, 권45, 地理類 祖江濤志, “挨者推也[方言稱水進曰推]”

37)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折只[言水折而減也]”

38) 『研經齋全集外集』, 권45, 地理類, 祖江濤志, “折只 言水折而減也”

- c. 一折只[물의 밀기가 꺾여서 미약해 지는 것이다]³⁹⁾
 <道路考 권4 附潮汐>
- d. 一折只[방언이다]⁴⁰⁾ <攷事新書 권1 潮汐>
- e. 20일을 一折[다격기]라 한다.⁴¹⁾
 <五洲衍文長箋散稿 潮汐辨證說>

(15d)에서 一折只가 방언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一折只가 차자 표기임을 말한 것이다. 二折只를 고려하면, 一折只는 一과 折只로 구분할 수 있다. 一折只와 二折只의 一과 二는 折只의 정도를 구분한 것으로 이해된다.

(15a)와 (15b)에서 折只를 ‘물이 꺾여서 적어진 것’으로 풀이하였다. 그런데 이 풀이는 ‘물의 무엇이 꺾여진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그런데 (15c)에서는 ‘물의 밀기가 꺾여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물의 밀기’는 潮水가 미는 기세’로 이해할 수 있고, 『新增類合』 下:46b에 折의 훈과 음이 ‘것글 절’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折只는 ‘것-[折]+이’으로 구성된 ‘것기’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折只[것기]/一折只[흔것기], 二折只[두것기], 大折只[한것기] 등은 潮水의 기세가 ‘꺾여지는 정도’를 구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五洲衍文長箋散稿』의 ‘一折, 二折, 盡折’ 등은 ‘一折只, 二折只, 盡折只’ 등의 생략 표기로 이해된다. 이는 (15e)에 제시된 바와 같이 折과 ‘격기’의 대응에서도 알 수 있다.

39) 『道路考』, 권4, 附潮汐, “一折只[水推折而微也]”

40) 『攷事新書』, 권1, 潮汐, “一折只[方言]”

41) 『五洲衍文長箋散稿』, 潮汐辨證說, “二十日謂之一折다격기”

3) 少音, 燥今, 燥金, 遭空 등의 해독

8일과 23일을 지칭하는 표기로 少音, 燥今, 燥金, 遭空 등이 나타난다.

(16) a. 少音[물이 극히 작은 것을 말한다.] 42)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汛>

b. 초8일은 上弦이다. 세속에서 初燥今이라 한다. 물이 나아가고 물리감이 없는 날이다.⁴³⁾<五洲衍文長箋散稿 潮汐辨證說>

c. 23일은 下弦이다. 大燥今이다.⁴⁴⁾

<五洲衍文長箋散稿』潮汐辨證說>

d. 遭空[방언이다.] 45)<攷事新書 권1 潮汐>

e. 遭空[물이 다 비어 줄어든 것이다.]⁴⁶⁾ <道路考 권4 附潮汐>

f. 우리 나라 방언에서 塩을 素金이라 한다. 또 초8일과 23일에 달은 반은 밝고, 반은 어둡다. 조수가 줄어드는 때를 燥金이라 한다. 塩과 부르는 것이 서로 비슷하다.⁴⁷⁾

<頤齋遺藁 卷之二十五 雜著 華音方言字義解>

g. 달의 초8일이 上弦이 되고, 23일이 下弦이 된다. 아울러 ‘조곰’이라 칭한다. ‘潮가 금지되다’의 뜻이다. 달이 상하현이 되면 바다 조수가 쉬는 까닭에 潮禁이라 한다. 48)<東言考略 上 俗言>

h. 물이 줄어든 것을 ‘조곰’이라 말한다. 49)

<萬機要覽 財用編二 漕轉 [漕規]>

42)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汛, “少音[言水極小也]”

43) 『五洲衍文長箋散稿』, 潮汐辨證說, “初八日 上弦 俗稱初燥今 水無進退之日也”

44) 『五洲衍文長箋散稿』, 潮汐辨證說, “二十三日 下弦 大燥今”

45) 『攷事新書』, 권1, 潮汐, “遭空[方言]”

46) 『道路考』, 권4, 附潮汐, “遭空[水盡空縮也]”

47) 『頤齋遺藁』, 권25, 雜著, 華音方言字義解, “我國方言呼塩爲素金 又呼初七 及二十三 月半白半黑 潮縮時日曰燥金 與呼塩者相近”

48) 『東言考略』, 上, 俗言, “以初八日爲上弦 廿三日爲下弦 并稱조곰者 潮禁也 月弦則海潮息 故謂潮禁”

49) 『萬機要覽』, 財用編二, 漕轉, 漕規, “水減謂之조곰”

(16d)에서 遭空을 방언이라 했으므로 遭空은 차자 표기이다. 또 少音, 燥今, 燥金, 遭空 등이 모두 8일과 23일을 지칭한 것이므로 少音, 燥今, 燥金 등도 차자 표기이다. 결국 少音, 燥今, 燥金, 遭空 등은 이표기 관계에 있다.

(16h)의 ‘조곰’에 근거해서 (16b)와 (16c)의 燥今과 (16f)의 燥金을 ‘조곰’으로, (16e)의 遭空을 ‘조공’으로 해독할 수 있다. ‘조공’은 ‘조곰’의 변이형으로 생각된다.

현대어 ‘조곰’을 의미하는 차자 표기 少音은 8일과 23일을 지칭하는 현대어 ‘조곰’이 한자어潮減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17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조곰[少許]’에서 기원한 것임을 알려 준다. 물론 『新增類合』 下:60a에 少의 훈과 음을 ‘저글 쇼’로 제시하고 있어, (16a)의 少音을 ‘조곰’으로 해독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에서 모음 대립에 의한 어휘의 대립쌍이 다수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적-[少]’의 대립쌍 *족-[少]도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8일과 23일을 지칭하는 ‘조곰’은 ‘조곰>조공>조곰’의 변화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馬經抄集諺解』 上:54a에 출현한 ‘조곰’의 경우에는 약간의 난점이 있다. 관련 문헌 중에서 『馬經抄集諺解』가 가장 연대가 이르기 때문이다.

한편,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음력 7일과 8일, 음력 22일과 23일의 이들을 ‘조곰’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음력 7일과 22일은 亞次燥今으로, 음력 8일은 初燥今 23일은 大燥今으로 설명한 것은 ‘조곰’을 두 단계로 나눈 것이다. 亞次燥今의 亞次는 15세기어 ‘아춘’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춘설’과 ‘설’의 대응에서 ‘아춘설’이 ‘설’의 전날을 말하는 것처럼, 亞次燥今도 燥今의 전날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初燥今과 大燥今은 上弦日인 음력 8일과 下弦日인 음력 23일을 구분한 명칭이다.

『霞谷集』 권21 潮汐說에서 음력 8일과 23일을 ‘조곰’ 또는 ‘遭空’ 대신

에 한어 弦 또는 上弦으로 표현한 것도 주목된다. 이것은 우리말을 한자어로 대치한 사례가 된다.

4) 水休, 水衰, 無水, 無數 등의 해독

9일과 24일을 지칭하는 표기로 水休, 水衰, 無水, 無數 등이 나타난다.

(17) a. 水休⁵⁰⁾ <霞谷集 권21 潮汐說>

b. 水衰[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遭空과 다르지 않다.]⁵¹⁾ <道路考 권4 附潮汐>

c. 無水[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초8일과 다르지 않다. 까닭에 無水라 한다]⁵²⁾ <『攷事新書』 권1 潮汐>, 無水[조수의 진퇴가 없는 것을 말한다.]⁵³⁾ <臺山遺集>

d. 초9일을 一水라 한다. 浦無息[기무숨날]로 이름한다. 二十四日이 다시 一水가 된다. 세속에서 死日이라 하기도 하고 또 無數라 한다.⁵⁴⁾ <五洲衍文長箋散稿 潮汐辨證說>

e. 小迅 매월 上下弦이다. 조수가 극히 줄어들어 가늘어지는 것이다. ‘무쉬’이다.⁵⁵⁾ <柳僖 物名考 水>

(17d)는 초9일과 24일을 두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즉 一水와 無數의 두 명칭으로 9일과 24일을 지칭하고 있다. 이것은 『五洲衍文長箋散稿』가 오늘날 남해안에서 적용되는 8물식 물때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50) 『霞谷集』, 권21, 潮汐說, “水休”

51) 『道路考』, 권4, 附潮汐, “水衰[不長不消與遭空無異也]”

52) 『攷事新書』, 권1, 潮汐, “無水[不長不消 與初八日無異 故曰無水]”

53) 『臺山遺集』, 권7, 鹽記, “無水[謂潮無進退也]”

54) 『五洲衍文長箋散稿』, 潮汐辨證說, “初九日稱一水 名曰浦無息 기무숨날 二十四日 更爲一水 俗稱死日 亦云無數”

55) 柳僖, 『物名考』, 水, “小迅 每月上下弦 潮極縮細 무쉬”

(17)에 제시된 水休, 無水, 水衰, 無數 등은 모두 9일이나 24일을 지칭한다. 따라서 水休, 無水, 水衰, 無數 등이 이표기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7c)의 水衰와 이에 대한 풀이인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이 水休, 水衰, 無水, 無數 등의 해독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潮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은 潮水가 ‘쉬는 것[休]’과 통한다. 『新增類合』 下:46a에 休의 훈이 ‘설 휴’, 『新增類合』 下:56a에 衰의 훈과 음이 ‘쇠 흘 쇠’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水休와 水衰가 ‘물 쉬다’에서 기원한 ‘무쉬<물쉬>’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新增類合』 下:58b에 無의 훈과 음이 ‘업슬 무’, 『新增類合』 上:6a에 水의 훈과 음이 ‘물 슈’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無水도 ‘무쉬’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無數 역시 ‘무쉬’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17e)의 ‘무쉬’는 이러한 해독에 근거가 된다.

한편 『五洲衍文長箋散稿』의 ‘기무숨날’에서 ‘기<개>’는 浦에 대응되므로 ‘무숨날’을 추출할 수 있다. ‘무숨날’은 ‘무수(<무쉬>)+入+날’에서 온 것으로 이해된다. ‘무숨날’은 ‘무숫날>무순날>무숨날’ 정도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된다.

5) 生伊와 澌의 해독

15일과 30일을 지칭하는 차자 표기로 生伊, 澌 등이 나타난다.

(18) a. 六水挨를 生伊라 부른다[물이 다 살아나서 극히성한 것이다] 56)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b. 六水挨[生伊라 부른다. 물이 살아나서 극히성한 것이다.] 57)<道

56)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六水挨號生伊[水盡生而極盛也]”

57) 『道路考』, 권4, 附潮汎, “六水挨[號生伊 水生極盛也]”

路考 권4 附潮汐>

- c. 生伊는 물이 다 살아나서 극히성한 것이다. 58) <旅菴全書 권9 四沿考, 潮汐>
- d. 六水挨를 生伊라 한다.[方言이다.] 59) <攷事新書 권1 潮汐>
- e. 15일에 이르러 六水와 七水, 八수에 극히 크게 불어난 것을 漸라 한다. 60) <五洲衍文長箋散稿』 潮汐辨證說>
- f. 물이 살아나는 것을 ‘술이’라 한다. 61) <萬機要覽 財用編二 漕轉 [漕規]>

(18d)에서 生伊를 방언이라 설명했다. 이것은 生伊가 차자 표기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18a), (18b), (18c), (18f) 등에서는 生伊의 의미를 水生 즉 ‘물이 살아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18f)에서는 우리 말 ‘술이’가 ‘물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에 기대어 生伊가 ‘살-[生]+-이’ 정도의 구성을 가지는 ‘사리’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18f)의 ‘술이’는 ‘살이’의 의고적 표기로 이해된다.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제시한 차자 표기 (18e) 漸는 일종의 생략 표기로 ‘사리’의 ‘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3.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의미 대립 체계

조선 시대 1월 내 조수를 구분하는 15개 어휘인 ‘一水挨, 二水挨, 三水挨, 四水挨, 五水挨, 六水挨, 七水挨, 八水挨, 九水挨, 十水挨, 折只, 二折

58) 『旅菴全書』, 권9, 四沿考, 潮汐, “生伊者水盡生而極盛也 纔生伊則即向衰日曰漸 衰日爲少音 纔少音則即向盛日曰漸盛爲生伊”

59) 『攷事新書』, 권1, 潮汐, “六水挨號生伊[方言]”

60) 『五洲衍文長箋散稿』, 潮汐辨證說, “至十五 六水及七八 極大漲謂之漸”

61) 『萬機要覽』, 財用編二, 漕轉, 漕規, “水生謂之술이”

只, 大折只, 少淸, 水衰’ 등은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 1월 내 조수 구분 어휘의 유형

단계	조수 구분 어휘	음력일	기간
단계 1	折只, 二折只, 大折只, 少淸	5일(20일)부터 8일(23일)	4일
단계 2	水休/水衰/無水/無數	9일(14일)	1일
단계 3	一水挨, 二水挨, 三水挨, 四水挨, 五水挨, 六水挨, 七水挨, 八水挨, 九水挨, 十水挨	10일(25일)부터 19일(4일)	10일

단계 1에 속한 4개 어휘 가운데에 3개의 어휘는 折只가 포함되어 있다. 折只는 ‘갓기[折]’ 정도로 해독되는 것이다. ‘물의 미는 기세가 꺾여졌다’의 의미로만 이해될 수 있다. 少淸은 ‘조끔’ 정도로 해독되는 것으로 ‘밑어온 조수의 양’이 아니라 ‘물의 미는 기세가 조금이다’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단계 1은 ‘물의 미는 기세가 꺾여 지는 단계’이며 이 단계를 折只, 二折只, 大折只, 少淸 등으로 세분한 것이다.

단계 2에는 1개의 어휘 水衰가 속해 있다. 水衰는 ‘물+쉬다’의 의미를 표현한 ‘무쉬’를 표현한 것으로 해독된다. ‘물+쉬다’는 ‘물이 미고 썬는 기세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단계 3에 속한 10개의 어휘에는 모두 水挨[물 미질다]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一, 二, ………, 十’ 등은 ‘물 미질다(밀다)’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단계 1이 ‘물의 미는 기세가 꺾여진 것’을 표현한 것이라면, 단계 3은 ‘물의 미는 기세가 살아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임에 틀림 없다. 一水挨부터 十水挨까지의 10일 동안 중에서 六水挨를 흔히 사리[生伊]라 불렀다. 折只가 ‘물의 미는 기세가 꺾여진 것’을 표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사리[生伊]는 ‘물의 미는 기세가 살아 있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리[生伊]는 본래 一水挨부터 十水挨까지의 10일 동안 을 모두 지칭하는 어휘였다. 그러나 일종의 ‘의미의 대표 지시화’ 현상으로 사리[生伊]는 ‘물의 미는 기세가 가장 센’ 15일과 30일을 지칭하는 六水挨 만을 특정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선 시대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 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5〉 조선 시대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구별 기준

음력일	조수의 힘	조수 힘의 세분	
1/16	生伊	七水挨	
2/17		八水挨	
3/18		九水挨	아홉물
4/19		十水挨	열물
5/20	折只	一折只	
6/21		二折只	
7/22		大折只	
8/23		少音	조금, 첫조금, 훗조금, 쏘금
9/24	水休/水衰/無水/無數		무쉬
10/25	生伊	一水挨	흔물
11/26		二水挨	두물
12/27		三水挨	
13/28		四水挨	
14/29		五水挨	
15/30		六水挨	

위 표는 조수 구분 계열어가 우선 사리[生伊], 기기[折只], 무쉬[無水] 등의 셋으로 나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사리[生伊]란 ‘潮水の 기세가

살아나는’ 10일간을 말하며, 짓기[折只]란 ‘潮水의 기세가 꺾여지는’ 4일간을 말하며, 무쉬[無水]란 ‘潮水의 기세가 살아있지도 않고 꺾여지지도 않는다’ 1일간을 말한다.

그리고 위 표는 10일간의 사리[生伊]가 一水挨부터 十水挨까지 열 개로 분할되어 있음과 4일간의 짓기[折只]가 ‘一折只, 二折只, 大折只, 少音/燥音’ 등의 넷으로 분할됨을 말하고 있다.

IV. 조선 시대 1년 내 조수 구분 계열어

1. 1년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종류

조선 시대 문헌 자료에서 1년 내 조수 구분 계열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9) a. 方言에 2월부터 7월 보름까지의 生伊를 强生伊라 하고, 그믐날의 生伊를 片生伊라 하며[强이란 것은 큰 것이요, 片이란 것은 작은 것이다.], 8월부터 정월 望日까지의 生伊를 片生伊라 하고, 그믐날의 生伊를 强生伊라 하며, 3, 4월 望生伊와 9, 10월 晦生伊를 大生伊라 한다. 한달에 두 번 生伊가 있는데, 봄·여름이면 晦生伊에는 물이 작고, 望生伊에는 물이 크되, 3월에 이르러 더욱 크고, 4월에는 더욱 큰데다 더 크며, 가을 겨울이 되면 望生伊에는 물이 적고, 晦生伊에는 물이 큰데, 9월에 이르러 더욱 크고, 10월에는 더욱 큰 데다 더 크며, 이것이 1년 동안의 潮汐의 大小의 징후이다.⁶²⁾ <東國文獻

62)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汛, “方言 自二月至七月望日之生伊 稱以强生伊 晦日之生伊 稱以片生伊[强子大也 片者小也] 自八月至正月望日之生伊 稱以片生伊 晦日之生伊 稱以强生伊 三四月望生伊 九十月之晦生伊 稱以大生伊 一月有兩生伊

備考 권22 附潮汎>

- b. 방언에 2월부터 7월까지 望日의 生伊를 强生伊라 하고, 晦日의 生伊 片生伊라 한다. 8월부터 正月까지 望日의 生伊 片生伊라 하고 晦日의 生伊를 强生伊라 한다. 3,4월 望日의 生伊와 9,10월 晦日의 生伊를 倭生伊라 한다. 무릇 强이란 큰 것이고, 片이란 작은 것이다. 倭란 더욱 큰 것이다. [方言에서 大를 倭라 말한다. 倭之亂이 크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高麗末 때의 俗語이다.]⁶³⁾<旅菴全書 권9 四沿考 潮汎>
- c. 正月 望日은 片生伊[片이란 작은 것이고 生伊라 물이 산다는 것이다.] 晦日은 强生伊[强이란 큰 것이다.], 2월 望日은 强生伊 晦日은 片生伊, 3월 望日은 大生伊[大란 불어난 것을 말한다.] 晦日은 片生伊, 4월 望日은 大生伊[물이 이 날에 이르러 더욱 크다] 晦日은 片生伊, 5월 望日은 强生伊, 晦日은 片生伊, 6월 望日은 强生伊, 晦日은 片生伊, 7월 望日은 强生伊, 晦日은 片生伊, 8월 望日은 片生伊, 晦日은 强生伊, 9월 望日은 片生伊, 晦日은 大生伊[물이 이 날에 매우 많이 불어난다.] 10월 望日은 片生伊, 晦日은 大生伊[물이 이 날에 크게 불어난다.] 11월 望日은 片生伊, 晦日은 强生伊, 12월 望日은 片生伊, 晦日은 强生伊[이것이 此祖江의 1년 내 潮信의 大小 징후이다]⁶⁴⁾ <研經齋全集 卷四十五 地理

春夏則晦生伊 水小望生伊 水大而至三月尤大四月尤大 而大秋冬 則望生伊 水小晦生伊 水大而至九月尤大十月尤大而大 此一年之內潮汐大小之候也”

63) 『旅菴全書』, 권9, 四沿考, 潮汎, “方言 自二月至七月望日之生伊 稱以强生伊 晦日之生伊 稱以片生伊 自八月至正月望日之生伊 稱以片生伊 晦日之生伊 稱以强生伊 三四月望生伊 九十月之晦生伊 稱以倭生伊 夫强者大也 片者小也 倭者尤大也[方言謂大亦曰倭 以倭之亂大而言也 高麗末時俗語]”

64) 『研經齋全集外集』, 권45, 地理類, 祖江濤志, “正月望日片生伊[片者小也 生伊者水生也] 晦日强生伊[强者大也] 二月望日强生伊 晦日片生伊 三月望日大生伊[大者言其漲也] 晦日片生伊 四月望日大生伊[水至此日則尤大] 晦日片生伊 五月望日强生伊 晦日片生伊 六月望日强生伊 晦日片生伊 七月望日强生伊 晦日片生伊 八月望日片生伊 晦日强生伊 九月望日片生伊 晦日大生伊[水於是日甚漲] 十月望日片生

類 祖江濤志>

- d. 3월부터 8월까지 望日의 生伊 强生伊라 한다. 晦日의 生伊를 片生伊라 한다. [强과 片은 方言이다.] 9월부터 2월까지 望日의 生伊를 片生伊라 한다. 晦日의 生伊를 强生伊이라 한다. [極長을 强生伊라 하고 微長을 片生伊라 한다.]⁶⁵⁾ <攷事新書 권1 潮汐>

조수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조력은 지구의 자전, 달의 지구 공전, 지구의 태양 공전에 따라 변화하고, 지구가 태양을 타원으로 공전하므로 15일과 30일인 사리[生伊]뿐만 아니라 1일부터 14일, 16일부터 29일까지도 조수 변화의 정도가 달마다 다를 것이다. 그런데 (19)의 각 항들은 모두 12개월의 달마다 2번 있는 사리[生伊]의 명칭과 조수 변화의 정도를 소개하면서 1년 내 1개월마다 2번 일어나는 사리[生伊]가 철마다 그 정도가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19a)와 (19d)는 片生伊, 强生伊, 大生伊 등 3종의 어휘를 소개하였고, (19b)는 片生伊, 强生伊, 倭生伊 등 3종의 어휘를 소개하였다. 한편 (19c)는 片生伊와 强生伊의 2종 어휘만 소개하였다.

(19)에서 片生伊, 强生伊, 大生伊, 倭生伊 등을 方言이라 한 것은 이들이 차자 표기임을 말한 것이다.

伊 晦日大生伊[水於是日大漲] 十一月望日片生伊 晦日强生伊 十二月望日片生伊 晦日强生伊[此祖江一年內潮信大小之候也]

65) 『攷事新書』, 권1, 潮汐, “自三月至八月望日之生伊 稱强生伊 晦日之生伊 稱片生伊[强片方言] 自九月至二月望日之生伊 稱片生伊 晦日之生伊 稱强生伊[極長曰强生伊微長曰片生伊]”

2. 1년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차자 표기 해독

1) 片生伊의 해독

片生伊를 주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 a. 片이란 작은 것이다. 66)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 b. 片이란 작은 것이다. 67)
 <研經齋全集 卷四十五 地理類 祖江濤志>
- c. 强과 片은 方言이다. 68) <攷事新書 권1 潮汐>
- d. 미약하게 불어난 것[長]을 片生伊라 말한다. 69)
 <攷事新書 권1 潮汐>

(20c)는 片이 방언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片이 차자 표기임을 말한 것이다. 한편 (20a)와 (20b)는 片의 의미를 ‘작대[小]’로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20d)는 ‘微長’으로 풀이하고 있다. 중국의 『농정전서』에서 長을 ‘조수가 이르르는 것/潮至曰長’으로 설명한 것에 기대면, 微長의 의미를 ‘潮水가 미약하게 밀려 오는 것’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한자어사전』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片舸를 ‘조각배’, 『화성성역의궤』에 나오는 片釘을 ‘작은 못’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동문유해』 下:58b에 片을 ‘通稱 조각’으로 풀이하고 있어, 片生伊를 ‘조각사리’ 정도로 해독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각사리’가 문증되지 않는다.

현재 전하는 방언형 ‘쪽사리’를 참고하여, 片이 ‘쪽>쪽’을 훈차 표기한

66)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片者小也”

67) 『研經齋全集』, 권45, 地理類, 祖江濤志, “片者小也”

68) 『攷事新書』, 권1, 潮汐, “强片方言”

69) 『攷事新書』, 권1, 潮汐, “微長曰片生伊”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대어 ‘쪽담, 쪽문, 쪽박, 쪽배’ 등에서⁷⁰⁾ ‘쪽’은 ‘작은’의 뜻을 가진 접두사라는 점도 이러한 해독이 바른 것임을 말하여 준다. 결국 片生伊는 ‘쪽사리’를 표기한 것이다. ‘쪽사리’는 ‘작은 사리’의 의미를 가진다. 현재 ‘쪽사리’는 방언형에만 존재한다.

2) 强生伊의 해독

强生伊를 주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1) a. 强이란 큰 것이다[大] ⁷¹⁾<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 b. 强이란 큰 것이다[大]⁷²⁾
 <研經齋全集 卷四十五 地理類 祖江濤志>
- c. 强과 片은 方言이다.⁷³⁾ <攷事新書 권1 潮汐>
- d. 極히 불어난 것[長]을 强生伊라 말한다.⁷⁴⁾ <攷事新書 권1 潮汐>

(21c)는 强이 방언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强이 차자 표기임을 말한 것이다. 『신증유합』 下:2에 强의 훈과 음을 ‘셀 강’으로 풀이하였으므로 强生伊를 ‘*센사리’ 정도로 해독할 수 있다. 물론 ‘*센사리’는 문증되지 않는다.

센사리[强生伊]란 ‘조수가 미는 힘이 세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21a)와 (21b)는 强의 의미를 한[大]으로 풀이하고 있다. 『龍飛御天歌』 67의 ‘한비 사으리로디’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은 ‘물의 양이 많다’는 표현

70) 『표준국어대사전』, 쪽, “「1」‘작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쪽담/쪽문/쪽박/쪽배. 「2」 ‘작은 조각으로 만든’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쪽걸상/쪽김치/쪽마루”

71) 『東國文獻備考』, 권22, 附潮汎, “强者大也”

72) 『研經齋全集』, 권45, 地理類, 祖江濤志, “强者大也”

73) 『攷事新書』, 권1, 潮汐, “强片方言”

74) 『攷事新書』, 권1, 潮汐, “極長曰强生伊”

이다. 이것은 ‘조수의 양’을 표현했다기보다 ‘불어난 조수의 양’의 의미를 통하여 ‘조수 힘의 세기’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21d)에서 ‘조수가 매우 밀어 오는 것’을 의미하는 極長으로 強의 의미를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3) 大生伊의 해독

大生伊를 주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2) a. 大란 불어남[漲]을 말한 것이다.⁷⁵⁾ <研經齋全集 卷四十五 地理類 祖江濤志>
 b. 4월 보름의 大生伊, 물이 이 날에 더욱 크다. ⁷⁶⁾<研經齋全集 卷四十五 地理類 祖江濤志>
 c. 그믐날 大生伊, 물이 이 날에 크게 불어난다[漲] ⁷⁷⁾ <研經齋全集 卷四十五 地理類 祖江濤志>

(22a)와 (22c)의 풀이는 大生伊의 大가 사리[生伊]의 불어남[漲]을 구분한 말임을 말하고 있다. (22b)는 大生伊의 大가 ‘尤大[더욱 크다]’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곧 強生伊가 ‘큰 사리’이지만 大生伊는 이보다 더 큰 사리임을 말한 것이다.

15일인 보름을 지칭하는 현대어 ‘한사리⁷⁸⁾’를 참고하여 大生伊를 ‘한사리’로 해독할 수 있다.

75) 『研經齋全集』, 권45, 地理類, 祖江濤志, “大者言其漲也”

76) 『研經齋全集』, 권45, 地理類, 祖江濤志, “四月望日大生伊 水至此日則尤大”

77) 『研經齋全集』, 권45, 地理類, 祖江濤志, “晦日大生伊 水於是日大漲”

78) 『표준국어대사전』, 한사리,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 ≒대고조 1. · 대기08(大起) · 대사리02 · 대조03(大潮) · 사리03 · 삭망조 · 큰사리.”

4) 倭生伊의 해독

倭生伊를 주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3) 倭란 더욱 큰 것이다. [方言에서 ‘크다’를 倭라 한다. 왜구의 난이 크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고려 말의 俗語이다.]⁷⁹⁾

<旅菴全書 권9 四沿考 潮汐>

(23)은 倭寇를 뜻하는 倭가 우리 말에서 ‘크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倭가 우리 말에서 ‘크다’의 뜻을 가지게 된 까닭을 고려말에 빈번하게 있었던 倭寇의 침입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을 지칭한 倭가 ‘크다’의 뜻으로 쓰이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24) a. 大物曰 왜빅이 <東言考略>

b. 大風曰 왜바람 <東言考略>

c. 왜골 : 허우대가 크고 말과 행동이 암전하지 못한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d. 왜뚜리 : 큰 물건. <표준국어대사전>

e. 왜바람(倭--): 방향이 없이 이리저리 함부로 부는 바람. ≒왜풍01(倭風). <표준국어대사전>

f. 왜장녀(--女) 『1』몸이 크고 부끄럼이 없는 여자. 『2』『민속』산대놀이에서 쓰는 여자의 탈. 또는 그 탈을 쓰고 춤추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g. 왜장질 : 쓸데없이 큰 소리로 마구 떠드는 짓. <표준국어대사전>

h. 왜장치다 : 쓸데없이 큰 소리로 마구 떠들다. <표준국어대사전>

i. 왜배기 : 걸보기에 좋고 질도 좋은 물건을 속되게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79) 『旅菴全書』, 권9, 四沿考, 潮汐, “倭者尤大也[方言謂大亦曰倭 以倭之亂大而言也 高麗末時俗語]”

j. 왜태(-太) : 큰 명태 <표준국어대사전>

(24)에 제시된 모든 용례에서 ‘왜’는 ‘크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24a)와 (24b)의 ‘왜’는 ‘크다’의 뜻이다. 그리고 (24c)의 ‘왜골’에서 ‘왜’는 ‘암전하지 못하다’의 추가적인 의미도 나타낸다. 그리고 (24e)의 ‘왜바람’에서 ‘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추가적인 의미도 나타낸다. (24f)의 ‘왜장녀’에서 ‘왜’는 ‘부끄럼이 없다’의 추가적인 의미도 나타낸다. (24g), (24h) 등의 ‘왜장’에서 ‘왜’는 ‘무모하다’의 추가적인 의미도 나타낸다.

(24)의 용례에 사용된 ‘왜’를 일본을 지칭한 倭에서 온 것으로 파악할 때, (24)에 사용된 ‘왜’의 모든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왜구의 침략은 우리에게 ‘큰 난리’이며, 그러한 난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난리의 선봉장인 倭將들의 행동은 ‘염치를 모르는 부끄럼이 없는 짓이며, 무모한 짓’으로 이해된다.

결국 倭寇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倭의 의미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일본을 지칭한 倭가 ‘크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 형성은 중국의 唐 나라를 지칭한 唐이 ‘크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東文選』 권78의 『演福寺塔重創記』에서 唐이 ‘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연복사는 실로 도성 안의 市街의 곁에 자리잡고 있는데 본래의 이름은 唐寺이다. 방언에 唐과 大는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당시는 또한 大寺라고도 부른다./ 演福寺 實據城中 關闔之側 本號唐寺 方言唐與大相似 亦謂大寺”으로 설명하고 있다. 唐은 大國이기 때문에 唐이 ‘크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倭生伊는 ‘왜사리’로 해독되며, 이 때의 ‘왜’는 ‘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태진(1969: 120)은 전라남도 금일도 방언의 ‘애사리’를 ‘왜사리’의 변화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3. 1년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의미 대립 체계

한국의 경우, 1년 내 사리[生伊]를 지칭하는 어휘로 쪽사리[片生伊], 센사리[强生伊], 한사리[大生伊], 왜사리[倭生伊] 등이 있다. 한사리[大生伊]와 왜사리[倭生伊]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조선 시대 1년 내 조수 구분 계열어는 쪽사리[片生伊], 센사리[强生伊], 한사리[大生伊]/왜사리[倭生伊] 등으로 구성된 3분 체계가 된다.

片生伊, 大生伊, 倭生伊 등은 각각 ‘쪽사리, 한사리, 왜사리’ 등을 차차 표기한 것이다. ‘센사리’를 차차 표기한 强生伊의 경우에는 ‘조수의 양’이 아니라 ‘조수의 힘’을 표현 대상으로 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片生伊, 大生伊, 倭生伊 등도 ‘조수의 힘’을 표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15일인 보름 사리는 달마다 달라지는데, 그 조수 구분 계열어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生伊는 제시하지 않는다.

〈표 6〉 조선 시대 1년 내 보름 사리 구분 계열어의 구별 기준

월구분	조수의 힘				
	東國文獻備考	旅菴全書	研經齋全集	攷事新書	
1월 15일	片	片	片	片	
2월 15일	强	强	强	片	
3월 15일	大	倭	大	强	
4월 15일					
5월 15일	强	强	强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片	片	片		片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					

29일이나 30일인 그믐 사리는 달마다 달라지는데, 그 조수 구분 계열어는 다음과 같다. 마찬가지로 편의상 生伊는 제시하지 않는다.

〈표 7〉 조선 시대 1년 내 그믐 사리 구분 계열어의 구별 기준

월구분	조수의 힘			
	東國文獻備考	旅菴全書	研經齋全集	攷事新書
1월 그믐	强	强	强	强
2월 그믐	片	片	片	
3월 그믐				
4월 그믐				
5월 그믐				
6월 그믐				
7월 그믐				
8월 그믐	强	强	强	片
9월 그믐	大	倭	大	
10월 그믐				
11월 그믐	强	强	强	
12월 그믐				

V. 결론

이 글은 1일 내, 1월 내, 1년 내 등 3종의 조선 시대 조수 구분 계열어의 종류와 그 어휘의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차자 표기 조수 구분 어휘를 해독하였고, 조수 구분 계열어의 의미 대립 기준을 분석하였다.

1일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종류에는 3종이 있다. 즉 ‘달물 대 혈물, 날물 대 *들물, 站[춤] 대 邊音[ㄱ슴]’ 등의 3종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종류에는 1종이 있다. 이 계열어의 어휘로 차자 표기

의 경우에는 ‘一水挨, 二水挨, 三水挨, 四水挨, 五水挨, 六水挨, 七水挨, 八水挨, 九水挨, 十水挨, 折只, 二折只, 大折只, 少擘, 水休/水衰/無水/無數’ 등의 15개 어휘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한글 표기의 경우에는 ‘흔물, 두물, 스리/한스리/한사리, 아흠물, 열물, 조금/첫조금/훗조금/쪼금’ 등 6개의 어휘를 발굴하였다. 1년 내 조수 구분 계열어에는 1종이 있다. 이 계열어의 어휘로 ‘片生伊, 强生伊, 大生伊/倭生伊’ 등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站을 ‘츨’으로 해독하고 ‘츨’이 ‘츨-[滿]+-口’ 정도의 구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邊擘은 ‘ㄹ슴’으로 해독하고 ‘ㄹ슴’은 ‘*ㄹ-[底]+-口’ 정도의 구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水挨는 ‘물 밀다’, 折只는 ‘것기’, 少擘은 ‘쪼끔’, 水休/水衰/無水/無數는 ‘무쉬’ 등으로 해독하였다. 그리고 片生伊는 ‘꼭사리’, 强生伊는 ‘센사리’, 大生伊는 ‘한사리’, 倭生伊는 ‘왜사리’로 해독하였다.

1일 내 조수 구분 계열어에서 ‘밀물 대 혈물’의 대립은 ‘조수의 힘과 방향을 구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날물’은 ‘조수의 수평 이동’을 구분 기준으로 한 것이고, ‘站[츨] 대 邊擘[ㄹ슴]’의 대립은 ‘조수의 수직 이동’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월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15개 어휘는 ‘조수의 힘’을 구분 기준으로 ‘生伊[사리], 折只[것기], 無水[무쉬]’ 등의 3종으로 계열화되어 있음을 규명하였다. 1년 내 조수 구분 계열어의 3개 어휘 역시 ‘조수 힘의 정도’를 구분 기준으로 한 것임을 규명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干滿抄伝書』(海事史料叢書 19, 昭和 6年, 日本 株式會社 暗松堂書店, 復刻板, 昭和 44년 (株)成山堂書店)
- 『至順鎮江誌 上·下』(元兪希魯 編纂 楊積慶, 賈秀英 等校點 南京:江蘇古籍出版社, 1999.9.)

2. 논문 및 단행본

- 강근보, 『牛島 學術調査』, 『國文學報』 5,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3, pp.54-178.
- , 『加波島 學術調査』, 『國文學報』 6,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4, pp.76-192.
- 강정희,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5』,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2011, pp.1-537.
- 국립국어원, 『해녀·어부·민속주-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자료 총서 6, 글누림출판사, 2009, pp.1-423.
-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고군산군도-한국민속종합보고서(29)』, 2000, pp.1-413.
- 국립민속박물관, 『어촌민속지-경기도·충청남도편』,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17, 1996, pp.1-436.
- 국립민속박물관, 『경남 어촌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33, 2002, pp.1-500.
- 김재원 편, 『西海島嶼調査報告』, 乙酉文化社, 1957, pp.1-260.
- 김 준, 『젓새우잡이의 역사와 어로문화』, 『도서문화』 31,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8, pp.33-60,
- , 『젓새우잡이의 역사와 어로문화』, 『도서문화』 31,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8, pp.33-60.
- 김해정, 『全北 仙遊島方言研究』, 『한국언어문학』 26, 한국언어학회, 1988, pp.85-104.
- , 『전북 위도 방언의 음운과 어휘』, 『人文論叢』 2, 又石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9, pp.1-16.
- 나승만, 『임자도 새우잡이 젓증선의 어로민속지』, 『도서문화』 24,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5, pp.385-421.

- 도수희, 『백제어연구(I)』, 사단법인 백제문화연구원, 1987, pp.1-462.
- _____, 『옛 지명 叢·巨老·買珍伊에 관한 문제』, 『지명학』 9, 한국지명학회, 2003, pp.61-81.
-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전라남도편)』, 1969, pp.1-781.
- _____,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전라북도편)』, 1971, pp.1-719.
- _____,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제주도편)』, 1974, pp.1-496.
- _____, 『한국민속종합보고서(충청남도편)』, 1975, pp.1-768.
- 석주명,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出版部, 1947, pp.1-555.
- 宋正海, 『中國傳統潮汐文化』, 『우리사회연구』, 우리사회문화학회, 2003, pp.175-191.
- 宋正海, 周潮生, 『錢塘江潮汐文化長廊』, 『中華科技史學會學』刊第 16 期(2011年 12 月), 2011, pp.99-104.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 바다가 사람들의 일과 삶』, 『始興市史』 6, 2007, pp.153-155.
- 辛兌鉉, 『三國史記地理志의 研究』, 宇鐘社, 1958, pp.1-120.
- 왕한석, 『한국의 언어 민속지 - 서편』, (주)교문사, 2009, pp.1-373.
- _____, 『한국의 언어 민속지 - 전라남북도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p.1-382.
- 왕한석, 『한국의 언어 민속지 - 경상남북도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p.1-607.
- 柳哲雄, 『村上水軍の潮汐表』, 『沿岸海洋研究ノート』 제25권 제2호, 1988, pp.191-196.
- 柳哲雄, 『李氏朝鮮時代の潮汐表』, 『海の研究』 4-4, 1995, pp.351-353.
- 이건식, 『한국고유한자 구성 요소 ㄹ의 의미와 특수성 형성 배경』, 『한민족문화연구』 42, 한민족문화학회, 2013, pp.101-139.
- 이경엽, 『금당 사람들의 삶과 민속신앙 : 당제와 수산의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17,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1, pp.161-196.
- _____, 『생일 사람들의 민속생활과 민속생태학적 환경 인지』, 『도서문화』 22,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5, pp.91-128.
- _____, 『갯벌지역의 어로활동과 어로신앙』, 『도서문화』 33,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9, pp.229-257.

- 이규필, 『대산집』 이본 소개와 대산의 實學的 면모에 대한 일고찰, 『2009년 한국한문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2009, pp.1-30.
- 이기복, 『물때를 통해 본 민속과학의 장기지속성』, 『민속학연구』 12, 국립민속박물관, 2003, pp.207-237.
- 이상룡 외 역(2012), 『최신 해양과학』, Essentials of OCEANOGRAPHY, (주)시그마프레스, pp.1-649.
- 이승녕, 『시간 어휘에 대하여 (1)』, 『한글』 8-4, 한글학회, 1940, pp.349-351.
- , 『德積群島의 방언』, 『新天地』 5권 6호, 서울신문사, 1950, pp.241-247.
- 장태진, 『제주도해녀집단의 특수어에 대하여』, 『金載元 博士 回甲紀念論叢』, 蔡堂 金載元 博士 回甲紀念事業委員會, 乙酉文化社, 1969, pp.817-834.
- , 『조수 어휘의 연구』, 『亞細亞研究』 12-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pp.89-127.
- 濟州大學 學徒護國團, 『海村生活調査報告書 : 龍水里 및 吾照里』, 『濟州學報』 19, 濟州大學校, 1978, pp.1-176.
- 조경만, 『흑산사람들의 삶과 민간신앙』, 『도서문화』 6,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1988, pp.133-185.
- 주강현, 『남해안 문항마을 '돌밭'의 현지조사 연구』, 『해양문화학』 1, 한국해양문화학회, 2005, pp.23-44.
- 周黔生, 『刻于浙江亭的四時潮候圖』, 『水資源研究』 第24卷第4期(總第89期), 2003, pp.39-40.
- 천소영, 『古代國語의 語彙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0, pp.1-295.
- 현용준, 『倉川里 學術調査』, 『國文學報』 4,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2, pp.84-178.
- , 『中文里 學術調査』, 『國文學報』 7,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5, pp.76-178.
- 현평효, 『濟州島 方言의 研究와 特徵에 대하여』, 『국어생활』 6, 국어연구소, 1986, pp.83-99.
- 홍기욱, 『경남 남해군 어촌지역 생활어휘 연구-행위자 및 환경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3 한민족어문학회, 2011, pp.273-298.
- 洪淳鏞, 『靑山島 方言 語彙集』, 『호남문화연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66, pp.183-201.

Abstract

A Study on the Tidal Terms of the Late Middle
and Early Modern Korean

Lee, Keon-Sik

This paper studied three sorts of the tidal terms of the late middle and early modern Korean, and explained tidal terms written by ancient Korean borrowed notation, and analyzed the distinguishing criteria of the tidal terms.

Tidal terms distinguished by a day are as follows : milmul[밀물], hyeolmul[혈물], nalmul[날물], cham[站/츄], gasim[邊音, ㄹ슴]

Tidal terms distinguished by a month as follows : hanmulmil[一水挨], dumulmil[二水挨], semulmil[三水挨], nemulmil[四水挨], daseotmulmil[五水挨], yeosetmulmil[六水挨], ilkopmulmil[七水挨], yeoteolmulmil[八水挨], ahopmulmi[九水挨], yeolmulmi[十水挨], geokki[折只], dugeokki[二折只], dageokki[大折只], jokeum[少音], muswi[水休/水衰/無水/無數], hanmul[흔물], dumul[두물], sari[生伊, 소리]/hansari[한소리]/hansari[한사리], ahopmul[아홉물], yeolmul[열물], jokeum[조금]/cheotjokom[첫조금]/hutjokom[훗조금]/jyokom[쪼금]

Tidal terms distinguished by a year as follows : jjoksari[片生伊, 쪽사리], sensari[强生伊, 센사리], hansari[大生伊, 한사리]/waesari[倭生伊, 왜사리]

The milmul[밀물] and hyeolmeul[혈물] can be distinguished by power and direction of the tide. The nalmul[날물] can be distinguished by horizontal movement of the tide. The cham[站/츄] and gaseum[邊音, ㄹ슴] can be distinguished by Vertical movement of the tide.

Tidal terms distinguished by a month can be divided into three : geokki[折只], muswi[水休/水衰/無水/無數], sari[生伊].

Tidal terms distinguished by a month can be distinguished by power of the tide.

Key Word : tide, tidal terms, Late Middle Korean, Early Modern Korean,
ancient Korean borrowed notation

이건식

소속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전화번호 : 031-8005-3026 / 010-6422-9169

전자우편 : leeksl@dankook.ac.kr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3년 7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2일 게재 확정됨.